

디지털 시대 '사진쓰기'의 의미

Meaning of 'Writing of Picture' in the Digital Era

김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Ji-Young Kim(jy9397@empal.com)

요약

2011년 올림푸스 광고에는 '사진을 쓰다'라는 카피가 등장했다. 보통 사진 뒤에는 흔히 '촬영하다'라는 동사를 붙이지만, 광고에서는 '쓰다'를 사진과 연결시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었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되고 사람들은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함께 기재하는 행위도 덩달아 대중화되었다. 사진을 먼저 찍고 후에 글을 쓰든, 글을 먼저 쓰고 후에 사진을 찍든, 디지털 시대에 '쓰다'와 '찍다'의 의미는 사실상 비슷하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진 등의 여러 이미지와 글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것은 곧 글을 쓰는데 사진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달리 글의 의미 전달이 문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자라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이런 분위기는 당연한 일이라 국어교육계에서는 사진 및 미디어 매체를 글쓰기에 활용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중심어 : | 디지털 | 매체언어교육 | 디지털 이미지 |

Abstract

In 2011, in the Olympus advertisement appeared a copy of 'Writing of Picture'. Usually, the verb of 'Shoot' is commonly attached behind the picture, but a new sentence was made connecting 'writing' into the picture in the advertisement. With entrance of the digital era, the digital devices became popular, and the behaviors people post messages and pictures together on the internet site also became popular. Whether we first take a picture and then make a writing later, or whether we first make a writing and then take a picture later, the meaning of 'writing' and 'shooting' is actually alike in the digital era. People now use various images and writings, at the same time, of the pictures in expressing their own selves positively. This soon means not only that the pictures are helpful for writings, but also that the delivery of the meaning is not carried out only by characters. To the digital natives who have grown within many images, this atmosphere is a natural thing.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tudy of making use of the pictures and media for writings is in progress.

■ keyword : | Digital | Digital Image | Media Language Education |

I. 서론

2011년 올림푸스(olympus) 광고에 '사진을 쓰다'라는 카피가 등장했다. 보통 사진이라는 명사 뒤에는 흔히 '찍다', '촬영하다'라는 동사를 붙이지만, 광고에서는 글을

쓸 때 '쓰다'를 사진과 연결시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을 쓰다'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기에 이 광고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전 카메라 광고들은 주로 카메라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올림푸스의 광고는 다른

광고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두었다.

올림푸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광고 폴버전 동영상을 보면, 배우 원빈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스냅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0.25초,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이 광고의 의미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사진을 스냅사진처럼 가볍게 ‘찍었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고 난 이후 사진은 ‘쓰는’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사진을 ‘쓰다’라는 것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찍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랑하는 이와 추억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들을 글을 쓰듯 사진으로 묘사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올림푸스 광고, 2011.

이처럼 ‘사진을 쓰다’라는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글을 쓰는 사람에게 펜과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카메라는 비슷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글뿐 아니라 사진 역시도 스토리텔링의 도구로 사용가능하여 사진으로 담아낸 이미지와 글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글을 쓰는 행위와 사진을 찍는 행위도 덩달아 대중화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함께 기재하는데, 사진을 먼저 찍고 후에 글을 쓰든, 글을 먼저 쓰고 사진을 후에 찍든, 디지털 시대에 ‘쓰다’와 ‘찍다’의 역할은 사실상 비슷하다. 결국 올림푸스 광고카피도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사진과 글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것은 곧 글을 쓰는데 사진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과거와 다르게 글의 의미 전달이 문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이런 분위기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힘입어 최근 국어교육계에서는 사진 및 미디어 매체를 글쓰기에 활용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실 디지털 시대가 도래되기 이전에도 사진과 회화에 텍스트를 활용한 사례는 많았지만 국어과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교육에 적용시킨다는 건 주목해볼만한 현상이다. 국어교육에서 글쓰기와 디지털 매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 2009년 정현선의 “디지털 시대 글쓰기에 있어 ‘표현도구’와 ‘매체특성’ 이해의 필요성:초등학교 어린이의 사진과 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와 소통으로서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학급문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진과 글을 통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 2010년 최숙기의 “국어교육과 매체 언어 이해 교육”, 장병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글쓰기 공간의 확장” 등이 있다.

- 연구문제 1. 디지털 시대 사진과 글쓰기의 관계
- 연구문제 2. 국어교육에서 매체언어교육의 의미
- 연구문제 3. 사진과 상상력

연구문제 1에서는 디지털 시대 사진과 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문제 2에서 사진 등의 시각 이미지와 글의 새로운 관계가 국어교육에 변화를 일으킨 매체언어교육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 연구문제 3에서는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한데, 사진에서는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와 디지털 사진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해 논해볼 것이다.

II. 본 론

디지털 시대가 도래된 이후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가 야기되었다. 그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에는 그동안 종이에만 쏘던 스토리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이동되고 있는데, 이제는 소셜조차도 인터넷에 먼저 공개가 되고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 이후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형태를 취할 때가 있다. 이처럼 디지털, 인터넷 등 기술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학과 바

꾸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는 그동안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글을 쓰고, 쓴 글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글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즉 전문적인 작가가 쓰는 수준의 글은 아닐지라도 인터넷상에서는 ‘글쓰기의 대중화’라 불릴 만큼 시사문제부터 시시콜콜한 사소한 일상까지 사람들이 쓰는 글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심지어 항간에는 “치킨집 만큼 많은 것이 출판사”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출판사도 많고, 출판사가 많은 건 글을 쓰고 싶은 욕구, 책을 펴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뜻이다. 한 예로 2011년 12월 6일, 교보문고는 이용자가 무료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직접 출판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자가출판시스템 ‘퍼플(PubPle)’을 출시했다. 퍼플은 출판하디의 ‘Publish’와 사람 ‘People’의 합성어로 ‘출판하는 사람’, 즉 ‘책 만드는 사람’이란 의미로 누구나 손쉽게 출판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도 글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왜 이것들이 등장하자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글을 쓸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가 무엇보다 재미있고 남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쓴 글들이 남들이 읽고 난 후 피드백으로 댓글을 달고, 남이 쓴 글에도 댓글을 달아줘 친밀감이 형성된다. 글 아래에 ‘태그(tag)’를 붙이면 남들이 나의 글을 쉽게 검색할 수도 있다. 즉 글쓰기는 유희(遊戱)이다. 그 유희의 근원에는 글과 더불어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중심에는 ‘사진’이 있다. 만약 디지털 매체에 의해 생산되는 이미지(사진)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글쓰기의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논문을 쓸 이유도 없다.

연구문제 1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어 사람들이 사진과 글을 함께 인터넷에 올리다보니 글쓰기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 사진과 글의 관계를 살펴 ‘사진 쓰기’의 의미를 살펴려 한다.

1. 디지털 시대 사진과 글쓰기의 관계

잘 알려진대로 과거에 사진과 글이 결합된 예술작품

은 많았다. 여기서는 먼저 디지털 시대 이전의 사진과 글이 결합된 예술 작품을 간단히 살펴보고 난 후 디지털 시대의 글과 사진을 논하려 한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특히 여러 미술사조 중 개념미술(conceptual art)에서 사진은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였는데, 이때 사진은 글과 결합되었다. 전혜숙에 의하면, 개념미술에서 갑자기 사진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원인중 하나로 사진은 다른 어떤 미술 매체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언어와 결합됨으로써, 언어로 작업하는 개념미술가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체이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또한 개념미술에서 사진의 초기 역할은 동이나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후에 사진 이미지의 속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고 서술한 바 있다[1]. 개념미술에서 사진과 글을 작품에 활용한 작가는 대표적으로 조셉 코스스(Joseph Kosuth), 빅터 버긴(Victor Burgin),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 등이 있고, 그 후에도 바라라 크루거(Barbara Krugger), 제니 홀저(Jenny Holzer), 소피 칼(Sophie Calle) 등 많은 작가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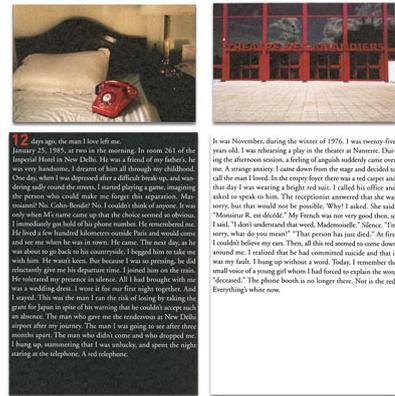


그림 2. 출처: 소피 칼.

위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시대 이전에 사진과 글의 결합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물론 그때도 사진은 일반인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매체였지만, 사진을 그냥 찍기만 하지 사진을 찍고 난 후 굳이 글까지 작성하여 무언가를 만들려는 생각까지 일반인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디지털 시대에는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사진, 글의 텍스트가 예술가는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냈다. 200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뤄진 조사내용을 보면, UCC(User Created Contents)이용 경험자는 83.5%, UCC 이용 생산 경험자는 51.1%, 주된 UCC 생산 형태는 텍스트(86.1%)와 사진(79.6%)이었다[2]. 이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등장하고 역시 같은 기관의 2010년 조사내용을 보면, SNS 사용자의 83.2%가 블로그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됐다[3]. 이른바 '사이버 일상성(cyber everydayness)'이라는 말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조합어이다[4].

최근 '글쓰기의 종말' 더 나아가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떠돌지만 21세기인 현재, 가상공간에서는 새로운 글쓰기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글쓰기의 공간이 이동되어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진도 문자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하여 언어처럼 읽힐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글인지, 사진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매체가 발달하면서 언어가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진이 함께 쓰이거나, 반대로 사진이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언어가 사용되는 등 언어와 언어 이외의 기호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일이 많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5]. 이영준도 디지털 시대 사진과 글의 결합은 디지털 사진은 단순히 새로운 저장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각의 층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능해진 일체의 문화적 태도와 관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좀 과장해서 말하면 디지털 사진은 인터넷과 맞물려 사진과 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지평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6]. 즉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과 디지털 사진, 글쓰기가 합쳐진 콘텐츠는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사진 쓰기'의 의미는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활용해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하고, 사진으로 사고를 형성시키며 사유하기를 시도한다는 뜻에

서 만들어진 말이다. 즉 예전의 글(문자)의 역할을 사진이 하고 있어 사진을 일종의 언어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근대 문자 중심에서 현대 이미지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사진은 이제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사고의 근본적인 출발점인 된 것이다[7].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교육내용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다음 절에서는 아이들이 읽고 써야 할 대상이 문자뿐이 아닌 디지털 사진 등의 여러 시각 이미지까지 포함할 의미인 매체언어교육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매체언어교육의 의미

여기서는 우선 '매체언어교육'이라는 용어속의 '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려 한다.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에서는 매체를 미디어(media)와 같은 말로 규정하고, 말과 글이 인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매체이듯 사진과 그림, 음악, 춤, 더 나아가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등도 역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여, 이를 광의의 매체라 하였다[8].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자를 중심으로 해왔던 국어교육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의미이다.

매체와 국어교육에 관한 초기의 논의는 매체를 교육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 매체를 국어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9]. 즉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언어로 인정하여, 2007년 2월 개정·고시된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매체언어교육이 도입되었다.

표 1. 매체언어교육의 성격과 목표

성격	매체언어의 성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아가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며, 언어 문화를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창조적인 국어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목표	매체언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문화 향유 능력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적 태도를 기른다.

출처: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이러한 매체와 매체언어에 대한 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매체 발달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라는 현실적인 상황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의사소통의 도구적 매체인 '언어'를 다루는 교과인 국어 교과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변화양상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10]. 결국 매체언어교육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을 항상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발생된 개념이다. 즉 매체언어교육은 기존에 국어교육에서 익숙하게 다루어 온 읽기와 쓰기를 미디어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체가 달라지면서 메시지를 표현하는 언어와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텍스트라도 어떤 매체에 실려 전달되고 유통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를 적절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국어교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1]. 예전에는 사진 등을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쓰였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수용하고 매체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내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기(2010)는 사실상 이제까지 국어교육은 근대적인 문자중심의 교육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국어과 내부에서 매체언어교육의 잠재적인 힘(potentiality)과 위상을 인식하여 이를 모색하는 노력은 상당히 보수적이라 지적하였다[12]. 따라서 현재는 매체·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학제적 접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단계라고 주장하여, 앞으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계속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이든 미술이든 모든 예술작품은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로 다음 절에서는 사진과 상상력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몇몇 사진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보려 한다.

3. 사진과 상상력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직접 경험해볼 수는 없다. 여러 이미지와 책 등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경로가 되는데, 사진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미국 금융 월가(wall street)에서 시작되어 영국, 호주 등 세계 곳곳으로 시위가 확산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의 시위대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의 반(反)정부 시위대는 좋은 예다. 이들은 모두 SNS를 통해 유포된 이미지와 글을 보고 간접 체험을 한 뒤, 시위대를 결성한 것이다. 카메라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를 보고 쓴 글은 사람들의 눈과 귀, 입 역할을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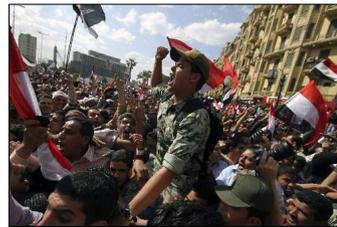


그림 3. 출처: AP연합뉴스, 2011.



그림 4. 출처: 연합뉴스, 2011.

이처럼 시각 이미지는 우리가 미처 대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 대상을 직접 보여주는데[13], 이것은 여러 가지 간접 체험의 자료가 되어 상상력을 펼치고 글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는 사유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여러 시각 이미지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여 이미지로 소유하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학교수업에서 이미지로 소유하기를 시도할 때, 여러 시각 이미지중 긴 영상은 그것을 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여, 서사가 담긴 많은 양의 정보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기 보다는 작품 감상 자체에 매몰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쓴다면, 독후감 식의 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작품 분량이

길어질수록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차질이 생기고, 집중력이 다소 부족한 아이들은 장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감상해야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져 아이들의 반응은 더 더진다[14]. 반면 사진은 그렇지 않다. 사진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작품 감상이 가능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된 작품 제작 또한 가능하다.

어떠한 대상을 글로 표현하기 힘들 때는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이때 사진은 상상력의 매개체가 된다. 상상은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앞에 있을 때 더욱 더 펼쳐질 수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따로 분리된 한 장의 사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상보다 더 집중적으로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흘러가는 시간과 이어지는 공간 모두를 보여주지 못하고 일부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시각 이미지라면 사진은 그 중의 하나다.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분리되어 나온 고정된 이미지로 이러한 고정된 사진을 분석하는 것은 상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사진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서 사고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사진을 예로 들어보자면 먼저 아래 사진은 거대한 잎사귀나 조각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찍은 배추밭의 지상 이미지다.



그림 5. 출처: 이태훈, 2010.

위의 사진은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의 '이퀴벌런트(equivalent)' 사진을 연상시키는데, 이퀴벌런트는 피사체가 원래의 의미를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사진을 가리킨다[15]. 이퀴벌런트는 평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보이는 대상에 자신만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감정이입을 시도한 것으로, 사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원형을 원형 그대로 찍어내는 모사력,

특히 근접했을 때의 미세한 부분적 형태나 질감을 전혀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복사력은 사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작가의 관점에 따라 프레임으로 사물을 시공간에서 분리시켜낼 수 있는 것도 사진뿐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외적 이미지와 작가의 내적 이미지의 이원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16]. 즉 평범했던 대상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기록하고, 기록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 시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이퀴벌런트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바로 사진이다.

아래 사진은 '가족'을 주제로 찍은 사진이다.



그림 6. 출처: 네이버 포토갤러리, 2009.

보통 가족사진이라 하면 식구들이 일렬로 서있거나 중앙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다른 가족들이 둘러싸인 사진이 연상되지만, 위의 사진에는 사람 얼굴이 빠져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뿜는 정서를 손으로 표현하여 사진가의 상상력과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즉,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가족은 하나라는 뜻을 손동작과 배열방식으로 잘 표현한 사진이다.

사진 5,6은 모두 사진을 촬영하고 난 후 별다른 이미지 변형이 이뤄지지 않은 사진인데 반해,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진을 실재를 허구처럼, 허구를 실재처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상상력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사진은 현실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기능에서 출발하였지만, 디지털

사진은 기존의 사고와 완전히 다른 인식체계 속에서 우리를 허구의 세계, 가상의 세계로 이끈다[17]. 물론 사진합성은 사진의 발명 초창기 몇몇 예술인과 이후 제리 울즈만(Jerry Uelsmann) 등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고도의 기술적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출현으로 사진합성은 머릿속 상상을 보다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다. 이제 디지털 기기는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이고, 디지털 사진은 그 상상력으로 산출된 결과물이다. 상상력을 실현시킬 기술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서 허구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 '기술적 상상력'은 예술작품의 근간이 된다. 일찍이 '예술에서 혁신은 내용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벤야민의 말처럼[18], 디지털은 기술적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예술의 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사진은 디지털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생산 주체로 작용한다. 아래 사진은 디지털 작업에 상상력을 붙여넣은 에릭 요한슨(Erik Johansson)의 작품이다.



그림 7. 출처: 에릭 요한슨

우리는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사진을 만들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진을 단

히 찍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진(이미지)을 해석하고 사진을 통해 사유하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디지털 사진은 예술적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II. 결론

산업사회에서는 일과 휴식, 학교공부와 놀이가 분명히 분리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자 여가활동의 욕구가 증대되었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는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었다.

디지털 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예술의 범위도 넓어지고, 예술의 재료도 변화되고,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정 시간 교육받은 일부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예술활동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EQ(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를 요구하는 감성시대의 도래로 사람들은 점차 문화, 예술적 욕구와 함께 작품생산의 욕구도 가지게 되었다. 일상에 대한 기록 욕구,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욕구,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대는 사람들의 문화, 예술적 욕구를 부추겼고, 이는 결국 아이들의 교육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찍이 서구의 학자들은 21세기의 아이들은 디지털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새로운 인종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19]. 예언을 증명하듯 최근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여 만든 사진합성이나 UCC 등의 각양각색의 표현은 개인, 혹은 아이들이 가진 상상력과 창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준다.

올리버 그라우(Oliver Grau)의 지적처럼, 이제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매체는 단지 '조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유 자체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었다[20]. 그러므로 디지털 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이제 사유, 지각을 거쳐 밖으로 배출된 결과물이다. 예전의 문자나 글이 수행했던 기능이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사진 쓰기'의

의미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모든 예술장르는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데[21], 사진과 글도 똑같다. 사진과 글이 혼합된 작품은 디지털이 등장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데 이 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국어교육에도 변화를 일으켜 디지털 매체와 글쓰기를 함께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어교육에도 사진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듯이, 사진교육에도 사진과 글을 활용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융합', '통섭' 등의 용어 아래 각 영역별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한 현재, 본고가 국어교육과 사진교육의 교류에 물꼬가 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야기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전혜숙, “개념미술 속의 사진들:존 발데사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제14집, pp.204-205, 2002.
 [2] 한국인터넷진흥원, “UCC이용 실태조사”, 2007.
 [3]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2010.
 [4] 사이버일상성이란 말은 서울여대 주창윤 교수가 언급한 말이다.
 [5] 정현선, “디지털 시대 글쓰기에 있어 ‘표현도구’와 ‘매체특성’ 이해의 필요성:초등학교 어린이의 사진과 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6집, p.102, 2009.
 [6] 이영준, “디지털 사진에서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영상예술연구, 제6집, p.95, 2005.
 [7] 김기국, “사진 텍스트와 몸 기호의 상관성”, 기호학연구, 제12집, p.43, 2002.
 [8]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국어시간에 매체 읽기*, 나라말, 2007.
 [9] 최미숙, 이은희,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p.78, 2007.

[10] 최숙기, “국어교육과 매체언어 이해교육”, 청담어문교육, 제42집, p.69, 2010.
 [11] 정현선,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19집, pp.97-98, 2007.
 [12] 박인기,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2010.
 [13] 김정우, “이미지를 중심으로 본 매체교육의 방향”, 선청어문, 제28집, p.505, 2000.
 [14] 장화심, *사진을 활용한 시 창작 교육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 석사논문, p.38, 2006.
 [15]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눈빛, p.53, 2004.
 [16] 한정식, *사진과 현실*, 눈빛, pp.53-54, 2003.
 [17] 매체철학연구회, *매체철학의 이해*, 인간사랑, p.253, 2005.
 [18] 윤영두, 최은영, “디지털 이미지의 미학적 수용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152, 2010.
 [19] Don Tapscott,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Y:McGraw-Hill, 1998.
 Seymour Papett, *The Children’s Machine*, NY:Basic Books.
 [20] 심혜련, “매체와 공감각, 그리고 자연적 인터페이스”, 미학, 제60집, p.118, 2009.
 [21] 조은하, 이대범, *디지털 스토리텔링*, 북스힐, pp.259, 2008.

저 자 소 개

김 지 영(Ji-Young Kim)

정희원



• 2011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대중예술,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진